

광주도시철도공사, 감사 무더기 적발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소모성 물품 구매나 임대 수익계약, SE사업 위수탁 협약 등을 제멋대로 처리했다. 광주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광주시가 공개한 '2017년도 광주도시철도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3일부터 11월1일까지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행위 20건을 적발해 신분상 조치 10명, 기관경고, 재정상조치 423억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물품구매의 경우 낙찰률 88% 이상으로 2인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익계약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14건을 1인 수익계약

물품구매·임대 수익계약 등 '제멋대로' 20건 적발 10명 신분상 조치...기관경고도

으로 처리했다.

해당 계약에 대해 최대낙찰률을 적용해 2인 이상 수익계약으로 처리할 경우 계약금액이 4억1230만1원 6000원 규모이지만 실제로는 4억 6733만원에 계약했다.

또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토록 돼 있는 내규를 어기고 물품구매담당 전결로 지출결의가 이뤄졌다.

도시철도공사는 연구내 점포 등을 임대하면서 경쟁입찰로 계약할 것을 선정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계약자가 중도 해지한 점포 3건, 기간 만료된 점포 2건에 대해 수익계약으

로 임대했다.

더구나 임대료 산정을 부정확하게 처리하고 임대점포 전대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8월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스템엔지니어링(SE)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방법이나 체결절차, 협약내용 등을 부정확하게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공사가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위탁관리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5억2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 지난 2006년부터 도시철도 1호선 구간 중 구분지상권에 대한 현물출자가 누락돼 423억원의 자본이 공사에 진입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부적정, 직원 호봉 확대절차 부적정, 업무용 승차권 관리 미흡, 물적 피해액 손해배상 후속조치 소홀 등도 적발됐다.

운영팀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감사는 피감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감사로 진행할 것이다"며 "하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이스라엘, 시리아 대대적 공습 퍼부어

이스라엘 군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대적으로 공습을 퍼부어 시리아 방공망에 큰 피해를 입혔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의 토메르 바르 장군은 이날 시리아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 사실을 확인하면서, 1982년 레바논전 이후 시리아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이스라엘 공군 소속 F-16기가 이란의 무인기를 추적하는 임무 중 시리아 쪽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다. F-16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추락했으며, 비행사는 추락하기 전 전투기에서 탈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0일 군 수뇌부와 회동해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를 겨냥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시리아에서 우리를 겨냥한 이란의 어떤 시도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터키군 소속 헬기콰터가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 반군을 공습하다가 격추돼 2명이 사망했다.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근 2주간 시리아에서 터키, 쿠르드·이스라엘·이란,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격화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최소 27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 남성, 폭설로 주차 허가증 가려져 벌금 부과

영국에서 주차 허가증이 눈 속에 파묻혀 운전자가 70 파운드(약 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영국 메트로가 최근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영국 체스터 그린에 거주하는 올리버 클렉스턴이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런던에 일이 있어 집을 떠나면서 오토바이를 주차 허가증이 보이도록 보온 패를 차량 유리창에 붙이는 등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주차 허가증을 발견하지 못한 주차 단속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클렉스턴의 차량 앞 유리창에 주차 위반 딱지를 부착했다.

클렉스턴은 "눈이 많이 와 주차 허가증이 보이지 않아 벌금을 냈다는 사연을 인터넷에서 접한 적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발생할 지 몰랐다"며 쓴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약에 주차 단속원이 내 차량 위의 눈을 살짝 치웠다면 벌금을 피할 수도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간 美 소년 구출

봉제인형을 갖기 위해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간 4살 어린이가 베이슨이 구출됐다.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지난 7일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인형뽑기 기계를 타고 기어 올랐다가 그 안에 갇힌 4살 소년이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출됐다"고 밝혔다.

장난감을 꺼내기 위해 식당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의 작은 문을 타고 안으로 기어 들어간 베이슨은 이날 오후 5시33분에 발견돼 5시41분에 구출됐다. 마침 해당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소방관 제러미 하우스의 빠른 신고가 도움이 됐다.

소방당국 대변인은 "베이슨이 들어 갈 수는 있었지만 같은 길로 빠져 나오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계가 열렸을 때 베이슨은 압전히 앉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콩서 이층버스 전복사고...최소 19명 사망

홍콩에서 10일 주행 중인 이층버스가 전복하는 사고가 일어나 최소한 1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홍콩 동방(東網)이 보도했다.

사이에 따르면 이날 저녁 6시15분 홍콩 타이포 부근에서 872 노선 이층버스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참사가 발생했다.

승객을 태우고 사탄(沙田) 경미장 출발해 타이포 센터로 가던 노선버스는 총차이원(松仔圍)을 지난 때 돌연 좌측으로 전도됐다.

남자 승객 1명이 밖으로 뿔겨져 나와 버스에 깔렸으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르고 쓰러지면서 죽거나 부상했다.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버스 탑승객 구조에 나섰다.

이층버스 뒤쪽의 유리창을 구조대와 주민이 깨고 부상자들을 끌어내 구급차 등으로 60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15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 운영자 등 4명 징역형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실직 운영자와 이 병원에 고용된 한 의사·병원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영자 A(36)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한의사 B(44)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병원 관계자 C(42) 씨는 징역 2년, D(41)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8월 지역 모 한방병원을 인수, 이른바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변화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도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 관련 비용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C 씨와 D 씨는 10~20%의 성과금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한방병원에 25명과 76명의 환자를 각각 소개한 혐의도 받았다.

주준정 기자



설 대목맞은 농산물도매시장 설 연휴를 나흘 앞둔 11일 부산 해운대구 빈야농산물도매시장이 선물용이나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2구역 강제퇴거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 서구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자 인가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LH의 논리와 '사업 인가 무효 확인 항소심 선고일인 4월9일까지 시간을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부딪치며 한 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9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빌라 앞.

법원 집행관들이 LH의 요구에 따라 빌라 내 3세대(상가 2곳·주택 1곳)를 퇴거시키기 위한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앞서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내 현대빌라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자, 법원에 부동산 명도판 행기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17일 강제 집행을 단행하려던 LH는 서구청의 요청 등을 받아들여 '사업 인가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의 선고 공판이 예정된 2월8일까지 집행을 미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인사 이동 등을 이유로 선고 공판 일정을 4월9일로 미뤘고, LH는 애초 예정돼 있던 선고 공판 다음날인 이날 강제 집행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용역업체 직원 20여명과 집행관들이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려고 하자, 이주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 6~7명과 서구의회 김옥수·이대행 의원이 막아섰다.

주민들은 "4월9일까지만 강제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LH 측은 "이미 이주할 수 있는 1년의 시간을 썼다. 사업 일정이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자, 집행관들이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1시간 넘게 이어진 중재 노력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 지지 않았고 결국 강제 집행을 이뤄졌다.

조인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일반 건강검진

생체진단기 건강진단

영양아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항목	진행 전	진행 후
암 조기 발견률	42%p 감소	42%p 증가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18%p 감소	18%p 증가

*본표는 건강검진 참여율이나, 미리 미리 건강 챙기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